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40호
2025.03.06.(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인나·원자재** 인도네시아, 新 외환통제 정책 발표... 니켈 가격 간접영향 발생 가능
- 중국·광물** 중국, 쿽 제도와 무역·인프라·해저광물 협정 맺어
- 캐나다·광물** 캐나다, 광물 탐사 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으로 중국 의존도 축소 모색
- 중국·자동차** 중국, 공공분야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관련 품목 동향 주목

주간 이슈 포커스

- 미국·광물** 트럼프, 구리 수입 국가안보 영향 조사 지시

원자재 뉴스 PLUS

- 에너지** OPEC+, 4월부터 원유 예정대로 증산 결정

II. 월간 공급망



EU 집행위원회, 공급망 실사 간소화 개정안 발표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미중 '관세전쟁' 속 중국 알루미늄 공급망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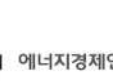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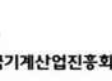
IV. 공급망 소식통



2025년 대한민국 소비자·서비스 수출대전(~3.21.)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인니, 원자재 인도네시아, 新 외환통제 정책 발표... 니켈 가격 간접영향 발생 가능

인도네시아는 3.1일부터 '천연자원 수출에 대한 외환통제 정책(DHE SDA)'을 시행

- 동 정책에 따르면, 석유 및 천연가스를 제외한 광업·임업 등 분야의 수출업체는 12개월간 외환 수입의 100%를 국립은행 특별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이는 올해 인도네시아 외환보유액을 8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

인도네시아 광물 수출업체의 외환 유동성이 제한되면 니켈 등 핵심광물의 채굴 및 제련 장비 수입 비용이 상승할 수 있어, 니켈 가격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니켈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42%에 해당하며, 2023년 기준 생산량은 연간 98백만 MT으로 세계 1위 수준

핵심 키워드

외환 정책

니켈

출처: Shanghai Metal Markets(2.27.)

중국, 광물 중국, 쿡 제도과 무역·인프라·해저광물 협정 맺어

쿡 제도(뉴질랜드와 자유연합 관계에 있는 오세아니아의 섬나라)가 중국과의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위한 5개년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현지언론은 보도(2.22.)

- 동 협정은 양국이 무역·인프라·교육·해저광물의 탐사 및 연구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쿡 제도 해저광물 관리 당국(The Cook Islands SBMA)에 따르면, 쿡 제도 해저의 광물량이 67억 톤에 이르며, 이를 통해 코발트 2천만 톤을 비롯해 대량의 니켈·구리·망간·철·희토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마크 브라운 쿡 제도 총리는 중국이 약 400만 달러(약 58억 원)의 일회성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

- 이는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

핵심 키워드

쿡 제도

해저광물 자원

출처: 로이터(2.19.), Radio New Zealand(2.22.)

캐나다, 광물 캐나다, 광물 탐사 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으로 중국 의존도 축소 모색

3.2일 조나단 월킨스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은 광물 탐사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2년 연장하겠다고 발표

- ▶ **캐나다 광물 탐사 세액공제(METC)**는 소규모 광산회사 유동주식(FTS)에 투자하는 경우, 1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오는 3.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음

* Flow-through Share(FTS): 광물 탐사 자금조달을 위해 만들어진 캐나다만의 독특한 세금 관련 인센티브로, 광업회사의 FTS를 매수한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비용 공제 권리를 이전받게 됨

- ▶ 이는 캐나다 정부가 **국내 광물 탐사에 투입된 중국 투자자본을 대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월킨스 장관은 광물 탐사 투자지원을 위해 약 1억 1천만 캐나다 달러(약 1,108억 원)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함

금번 세액공제 연장 결정은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국 광업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관계 개선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풀이

- ▶ 캐나다는 중국 국유기업이 국내 광산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지난 2022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 리튬업체들에 투자 중인 중국기업들에 투자 철회를 명령한 적이 있음

- ▶ 한편 월킨스 장관은 게르마늄·갈륨과 같은 핵심광물의 미국 공급을 제한하며 호혜적인 관계 구축을 도모함

* 반면,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비해 보복 조치로써 금속에 대한 수출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보호주의적 대응 방안 또한 마련

핵심 키워드

세액공제

공급망 안정화

출처: SCMP(3.3.), 로이터(3.4.)

중국, 자동차 중국, 공공분야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관련 품목 동향 주목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8개 부서는 공공분야의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제2기 공공분야 차량 전면 전동화 선행구 시범도시’ 10개(톈진, 창저우, 시안 등)를 발표(2.25.)

* 신에너지차(New Energy Vehicle, 이하 NEV)는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을 포함하며, 중국 당국은 관용차, 택시, 도시버스, 환경위생차량, 도시 물류 배송, 특정 중형 화물차 등 공공분야 차량의 NEV를 보급

- ▶ 이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공공부문으로의 NEV 보급을 통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경제 회복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

중국 정부는 2009년 발표한 10개의 시범도시에서 매년 NEV를 1,000대씩 생산하는 ‘10개 도시, 차량 1,000대’ 정책 이후로 후속 정책들을 마련하여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음

중국의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리튬·니켈·희토류 등 관련 품목의 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됨

핵심 키워드

신에너지차

경기부양책

출처: 중국 공업정보화부(2.25.)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국, 광물 트럼프, 구리 수입 국가안보 영향 조사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미 상무부에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2.25.)

*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 동 명령은 원광·농축물·정련구리·구리합금 및 관련 제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구리 수입을 포괄
- ▶ 백악관은 25일 미국의 구리 매장량은 풍부하나, 정·제련 능력이 중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2023년 기준 美 제련구리 생산량은 89만 톤, 매장량은 4,700만 톤(中 생산량 1,200만 톤, 매장량 41만 톤)

미국의 구리 관세부와 움직임과 업계 시사점

구리 광물 개요

- ▶ 구리는 열이나 전기의 전도율이 크며, 연성과 전성이 우수한 적동색의 금속임
- ▶ 부식에 대한 저항도나 산성에 견디는 힘이 있으며, 질이 연해 다른 금속과 잘 융합되는 성질이 있음
- ▶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리튬이온배터리의 음극 집전체로 활용되며, 건설·통신·운송 부문에서 사용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전세계 구리 매장량 순위〉 (단위: 천 톤)

순위	국가	매장량
1위	칠레	190,000
2위	호주	97,000
3위	페루	81,000
4위	러시아	62,000
5위	멕시코	53,000

*자료: 미국 지질조사국(USGS)

구리와 관련된 미국 관세부와 움직임

- ▶ 미국은 지난해 약 96억 달러 규모의 구리를 수입, 약 113억 달러 규모를 수출한바, 구리에 대한 관세부와 움직임은 무역적자 완화보다는 산업적 중요성이 큰 광물인 구리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함으로 풀이
- ▶ 로이터는 구리에 대한 관세가 최종적으로 도입되면 정련동과 구리 제품의 최대 대미 수출국인 칠레, 캐나다, 멕시코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 ▶ 한편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중국은 세계 구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초과생산과 덤핑을 하고 있다”며 저가 중국산 구리를 관세부와 영향 조사의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

한국 업계에의 시사점

-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구리제품 약 5억 7천만 달러(약 8,300억 원) 상당을 수출하였고, 미국으로부터 약 4억 2천만 달러(약 6,100억 원) 상당을 수입하여 관세 부과 시 영향받을 가능성 있음

* 다만 동광(구리가 든 광석)의 경우 작년 대미 수출은 없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천 달러 상당으로 양국 간 교역 미미

핵심 키워드

구리

관세

출처: 백악관(2.25.), 블룸버그(2.26.), 로이터(2.26.), 미국 지질조사국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에너지 OPEC+, 4월부터 원유 예정대로 증산 결정

3.3일 로이터는 OPEC+가 예정대로 4월부터 점진적으로 원유 증산을 발표했다고 보도

- ▶ 지난해 12월 OPEC+는 일 평균 13만 8천 배럴 규모의 단계적 증산 개시를 '25.1월에서 '25.4월로 미룸
- ▶ OPEC는 “점진적 증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 중단될 수 있다”며, “이러한 유연성을 통해 석유 시장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발언

출처: 로이터(3.3.)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2월 4주)

비철금속 | 中 양회개최·美 관세부와 검토로 동 가격↑, 中 전기차 생산 확대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년	전년비(%)	2.3주	2.4주	전주비(%)
동	9,147	8,978	△1.8	9,406	9,447	0.4
니켈	16,812	15,379	△8.5	15,229	15,408	1.2
아연	2,779	2,825	1.7	2,846	2,796	△1.8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동) ▲中 양회개최로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 부상, ▲美 동 관세부와 검토, ▲칠레 대규모 정전사태에 의한 공급 차질에 따른 선제적 수요발생으로 가격 상승압력 발생

- ▶ 단, 美 관세부와 리스크 확대 및 달러가치 상승으로 위험자산 기피심리 확대되어 가격 상승압력 부분 상쇄

(니켈) 중국 전기차 생산확대에 따라 배터리 원재료 수요가 개선되며 니켈 가격 상방압력 발생

철강 | 中 철강생산 규제 및 美 철강 추가관세 부과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년	전년비(%)	2.3주	2.4주	전주비(%)
연료탄	136.43	118.75	△13.0	105.11	101.12	△3.8
원료탄	240.90	192.26	△20.2	189.30	187.40	△1.0
철광석	109.89	101.61	△7.5	107.44	106.15	△1.2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유연탄) 국제유가 2주 연속 하락 및 中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가격 하방압력 발생

(철광석) 中 철강생산 규제에 따른 조강생산 감소전망 및 美 철강제품 추가관세 부과로 가격 하방압력 발생

- ▶ 단, 中 양회개최로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감이 상기 하방압력 부분 상쇄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2월 4주)

희소금속 | 수요 대비 공급 증가로 인한 탄산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월	전년비(%)	2.3주	2.4주	전주비(%)
페로망간	1,201	1,120	△6.8	1,140	1,140	-
탄산리튬	12,526	10,341	△17.4	10,396	10,307	△0.9
수산화리튬	11,398	9,620	△15.6	9,708	9,715	0.1
코발트 (U\$/lb)	16.25	14.18	△12.8	14.00	14.00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257,362	226,088	△12.2	235,500	236,700	0.5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55,684	56,424	1.3	61,590	63,600	3.3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탄산리튬) 수요 대비 주요국·기업의 공급증가 지속되며 전주 대비 가격 소폭 하락

🔍 칠레·인니를 중심으로 탄산리튬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24년 中 탄산리튬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45% 증가

에너지 | 러-우 전쟁 종식 기대 확산 및 관세 정책 불확실성 부각으로 유가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4년	'25년	전년비(U\$/bbl)	2.3주	2.4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79.58	79.02	△0.56	78.52	76.78	△1.74
브렌트유	79.86	76.61	△3.24	75.60	73.59	△2.01
WTI	75.76	73.13	△2.63	71.77	69.65	△2.12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원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 2.28일(현지시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지며 러-우 종전 기대 확산
-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시점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시장 혼란을 야기함
-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對EU 관세 25% 부과, 對中 관세 10% 추가 인상 등을 예고하여 관세 정책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부각됨

월간 공급망

EU 집행위원회, 공급망 실사 간소화 개정안 발표

작성 KOTRA 브뤼셀무역관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개정 개요

- 2.26일, EU 집행위원회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간소화한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지침*' 발표

* 동 옴니버스 지침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포함되어 있으나, 간략한 언급에 그쳤으며, 집행위원회가 '26년 초에 CBAM 간소화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EU 2022/2464)은 역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침으로, 대상 기업은 지속가능성 보고표준(ESRS)에 따른 공시 필요

- 타국 대비 과도한 규제가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판단하에, EU는 '규제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의무를 줄이고 부담 완화 추진

* 규제 간소화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된 'EU 경쟁력 나침반' 이니셔티브('25.1.29)의 주요 실행 방안 중 하나

EU 경쟁력 나침반(EU Competitiveness Compass)

- '25~'29년 EU 집행위원회의 업무 방향이 담긴 이니셔티브로, 3대 핵심 과제와 5개 실행 방안을 제시
 - (핵심 과제) ① 혁신 격차 해소, ② 탈탄소화-경쟁력 강화 로드맵, ③ 역외 의존도 축소 및 경제안보 강화
 - (실행 방안) ▲규제 환경 간소화, ▲장벽 제거를 통한 단일시장 강화, ▲저축·투자 연합 구축 및 금융 경쟁력 증대, ▲노동역량 강화 및 사회적 형평성 보장, ▲역내 정책 조율 개선

-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기업의 실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 특히 기업의 금전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실사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기대

* EU는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 절감 효과를 연간 3.2억 유로로 추정

개정안 주요 내용

- (시행 일정) 회원국의 자국법 입법 전환 시한이 1년 연장되었으며, '27년 적용 예정이던 초대형 기업에 대한 일정 삭제
 - EU 회원국별 입법 전환 마감 시점이 기존 '26.7.26일 → '27.7.26일로 연기
 - 초대형 기업(직원 수 5천명, 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적용 조항이 삭제되면서, '28.7월부터 연 매출 9억 유로 초과 기업에 적용 개시

〈표1〉 개정된 기업 적용 시기

대상 기업	실사 의무	공시
(역내) 직원 수 3,000명 초과 및 전 세계 매출 9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28.7.26일부터	‘29년부터
(역외) EU 내 매출 9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역내) 직원 수 1,000명 초과 및 전 세계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최종 모기업, 로열티 수익 기업	‘29.7.26일부터	‘30년부터
(역외) EU 내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로열티 수익 기업		

⑤ (실사 범위 축소) 기업의 실사 대상에서 간접 협력사는 제외되었으며, 실사 범위는 ▲기업 자체, ▲자회사, ▲직접 협력사(공급기업)로 한정

- ▶ 다만, 객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간접 협력사도 실사 대상에 포함하여 인권 및 환경적 리스크에 대한 심층 평가 수행 필요 (예) 언론보도나 NGO 제보 등을 통해 해당 협력사의 문제가 드러난 경우 등
- ▶ 한편, 실사 의무 기업이 직접 협력사로 계약 보증(Contractual Assurances)을 요구해 간접 협력사도 기업의 행동 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조항은 유지

⑥ (중소·중견기업 보호 강화) 작은 규모의 협력사에 대해 실사 의무 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수준이 제한되며, 기존의 계약 종료 조항이 삭제됨

- ▶ (요구 가능 정보 범위) 직원 수 500명 미만 협력사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의 자율 보고 기준(VSME)*으로 제한

* voluntary standard for SMEs, 세부 내용은 집행위원회가 추후 위임법을 통해 마련

🔥 기업이 공급망 매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없거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식별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추가 정보 요청 가능

- ▶ (계약 종료 조항 삭제) 협력사의 부정적 영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존 지침에서 명시되었던 ‘계약 종료’ 조항이 삭제되나, 해당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강화된 예방실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이행 촉진

* enhanced prevention action plan for the specific adverse impact

🔥 강화된 예방실행계획이 이행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경우, 해당 협력사와 거래를 계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⑦ (이해관계자 영향력 축소) 기존 이해관계자의 범위에서 소비자, 단체, NGO 등이 제외되었으며, 실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가 필요했던 일부 단계도 삭제*

* 삭제 항목 :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참여, 사업 관계의 중단 또는 종료

〈표2〉 이해관계자 관련 개정 내용

구분	내용
이해관계자 범위	실사 의무 기업, 자회사, 협력사의 직원·노조·근로자 대표, 기업·자회사·협력사의 제품·서비스·운영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커뮤니티
실사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단계	- 부정적 영향의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필요 정보 수집 - 예방 및 시정조치 계획수립 및 강화된 예방·시정조치 계획수립 - 시정조치 채택

- **(실사 모니터링)** 기업 실사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주기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나, 실사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는 경우 관련 근거가 확보될 때마다 수행
- **(기후 전환 계획)** 기존 기후 전환 계획의 ‘채택 및 이행’ 의무에서 ‘이행’ 의무가 삭제되었으며, ‘4대 세부 실행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implementing actions)’ 수립으로 대체

〈표3〉 기후 전환 계획 관련 비교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목표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 파리협정에 따른 지구온난화 1.5℃ 감축 , 2050년까지의 기후 중립 목표 달성	변경 없음
계획 포함 사항	· 2030년 및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한 기후변화 완화 및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 감축 목표(Scope 1-3) 설정 · 탈탄소화 조치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조치 설명 · 계획을 이행하는 투자·자금 수단 설명 및 정량화 표기 · 기업 계획과 관련된 행정, 관리, 감독에 대한 설명	기존의 4개 항목이 삭제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implementing actions)’ 수립으로 대체
기업 의무	상기 사항들을 반영한 기후 전환 계획의 채택 및 이행 의무	상기 사항들을 반영한 기후 전환 계획의 ‘채택’만 의무화 (이행 의무 삭제)

- **(민사책임)** 기업의 민사적 책임이 개별 회원국 법률에 따라 결정되도록 변경*되면서, 기존 지침 대비 EU 차원의 책임 부과 기준이 완화됨
 - * 피해자의 ‘완전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유지되지만, 이 역시 개별 회원국 법률을 따르도록 개정
- ▶ 또한, 노조 또는 인권·환경 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도 삭제
- **(조화수준 범위 확대)** 회원국이 EU 지침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수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화수준(Harmonisation Level)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
 - ▶ 기존에는 일부 핵심 조항에 대해서만 EU 차원의 기준을 따르도록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룹 차원의 실사, 고충 처리 절차 등으로 확대
 - ▶ 다만, 특정 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회원국별 추가 규제는 허용

〈표4〉 조화수준 조항 비교

기존 지침 내 조화수준 포함 조항	개정안 조화수준 포함 조항
잠재적·실제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8조 1~2항),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10조 1항),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의 해소(11조 1항)	기업 그룹 차원의 실사 지원(6조), 잠재적·실제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8조 1~4항),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10조 1~5항),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의 해소(11조 1~6항), 통보 및 고충 처리 절차(14조)

- 🔍 (가이드라인) 기업의 실사 이행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기존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26.7.26일까지 발표할 예정

〈표5〉 가이드라인 발표 일정

일정	세부 내용
~'26.7.26일 (기존 '27.1.26일)	실사 절차 전반(부정적 영향의 식별, 우선순위 지정, 구매 관행 조정, 예방 및 시정조치, 이해관계자의 식별 및 참여 방법, 통보 및 고충 처리 절차, 모범사례 등)
~'27.1.26 (변동 없음)	고위험 및 부문별 위험 요소 평가, 데이터·디지털 지원 도구 및 기술
~'27.7.26일 (변동 없음)	기후 전환 계획, 기업 간 자원 및 정보 공유, 실사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와 대리인의 참여

- 🔍 (제재) 벌금의 최대로로 설정되었던 '전 세계 순매출액의 5%' 기준은 삭제되었으며, 집행위원회는 벌금 수준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

□ 향후 일정

🔥 CSDDD 개정안 입법 절차

EU 집행위원회 옴니버스 패키지 제안('25.2.26) → 유럽의회·EU 이사회 심의 및 채택 → EU 관보 게재 → 발효

- 🔍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는 각각의 협상 입장을 마련 후 EU 차원의 합의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의회 내 정당별 입장차이와 이사회 내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까지 난항 예상
- ▶ 유럽의회의 경우, EPP(국민당) 등 우파정당들이 규제 간소화를 지지하는 반면 S&D(사회당), 녹색당(Greens) 등이 반대 중이며, EU 이사회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스페인에서 반대
 - ▶ EU 집행위원회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를 우선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의회와 이사회가 이에 동의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관련 동향 주시 필요

공급망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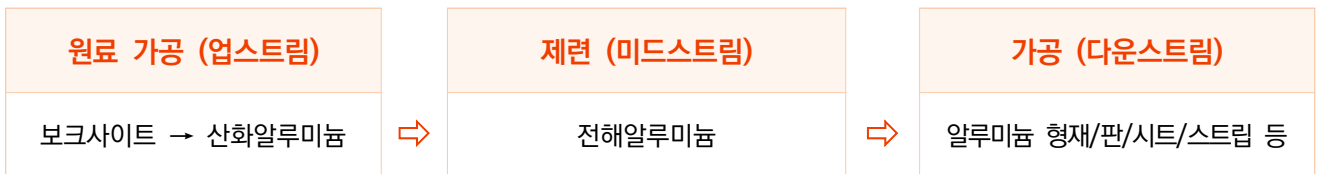
미중 '관세전쟁' 속 중국 알루미늄 공급망 동향

원문 KOTRA 베이징무역관 해외시장뉴스

알루미늄

- 알루미늄은 은백색의 가벼운 금속으로, 주로 보크사이트(bauxite)라는 광석에서 추출됨. 보크사이트를 가공해 산화알루미늄을 얻은 뒤, 이를 고온에서 전기분해하면 전해알루미늄이 됨

〈가공 단계별 알루미늄 유형〉



* 자료: 카이원 증권

- 알루미늄은 경량성·내식성·재활용성 등 강점이 뚜렷하여 포장·부동산과 같은 전통적 산업부터 전기 기계·전력·항공우주·조선·자동차 제조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중국 보크사이트 부존량 및 알루미늄 생산량

- 미국지질조사국(USGS)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확인된 보크사이트 광산자원 총 부존량은 약 300억 톤이며, 그중 중국 보크사이트 광산 부존량은 약 7.1억 톤(전세계의 2% 수준)에 불과
- ▶ 보크사이트 자원이 가장 풍부한 국가는 기니로, 74억 톤이 매장돼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약 25%에 해당함. 이어서 베트남(58억 톤)과 호주(35억 톤)가 각각 19%, 12%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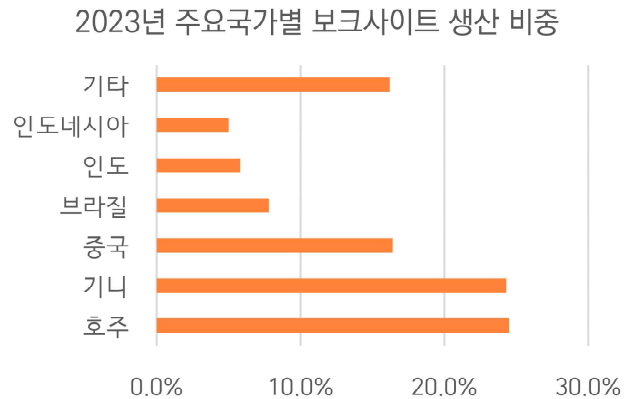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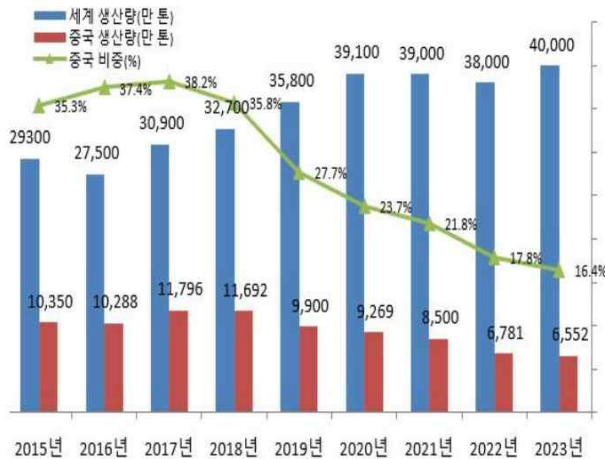
2023년 주요국가별 보크사이트 부존량 비중



* 자료: USGS, vzko

- ▶ 2023년 전 세계 보크사이트 생산량은 4억 톤이며, 상위 3개 생산량 지역은 호주, 기니, 중국 순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25%, 24%, 16%를 차지
- ▶ 그러나 중국의 경우, 자원 고갈과 환경보호 정책 강화 등의 이유로 인해 2023년 보크사이트 생산량이 약 6,552만 톤으로 2020년(9,269만 톤)에 비해 29% 감소하였으며, 향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

〈2023년 중국 및 전세계 보크사이트 생산량(좌), 주요국가 생산비중(우)〉



* 자료: USGS, Frost&Sullivan, 화원컨설팅

- ◉ 중국유색금속가공공업협회 및 중징컨설팅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해알루미늄, 알루미늄판재 등 품목의 생산량은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함
- ◉ 전해알루미늄은 알루미늄판재의 주요 원재료로서 2024년 중국 전해알루미늄 생산량은 4,180만 톤으로 전 세계 총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

* 전해알루미늄: 알루미늄 화합물(산화알루미늄)에 전기 화학 반응을 일으켜 알루미늄을 얻는 야금 공정

** 알루미늄판재(铝材): 알루미늄 산업 체인의 다운스트림 가공 단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해알루미늄 또는 재생 알루미늄에 합금 원소를 첨가한 후 압출, 연압 등 방식을 통해 알루미늄 형재·판·시트·스트립 등으로 가공된 재료

2024년 중국 및 전세계 전해알루미늄 생산량



중국 알루미늄판재 생산량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SMM, 중징컨설팅

중국 알루미늄 수요동향

- ▶ SMM 통계에 따르면, 중국 2024년 전해알루미늄 소비량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7,180만 톤으로 전 세계 전해알루미늄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
- ▶ 2024년 중국 전해알루미늄 소비구조 중 건설업이 2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 22%, 전력 21%, 포장재 12%, 내구소비재(자동차·텔레비전·냉장고·가구 등) 10%, 기계장비 8% 순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SMM, 중징컨설팅

- ▶ 건설업에서의 알루미늄은 주로 창문, 형재 등 부동산 공정에 활용되고, 교통은 주로 고속철도, 지하철 등 '철로' 교통에 사용됨
- ▶ 최근 들어 부동산 산업 침체에 따라 건축용 알루미늄의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에너지 전환, 탄소 절감 기조가 강화되면서, 신에너지차와 신에너지 발전 분야에서의 알루미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주요 산업별 전해알루미늄 수요량〉

(단위: 만 톤)

산업분야	2022년	2023년	2024년	2025-2029년(예상치)
건설업	1,240	1,136	1,180	1050~1150
자동차 산업	350	392	425	450~550
신에너지 발전	231	418	480	550~600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SMM, 중징컨설팅

중국 알루미늄 수출동향

- ▶ 중국 알루미늄 주요 수출국 수출 비중에서 對멕시코, 베트남, 캐나다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對美 수출 비중은 점차 감소

2024년 對韓 수출량은 22만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7.7%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큰 변화는 없음

〈중국 알루미늄(HS 760612) 수출 동향〉 (단위: 만 톤, %)

순위	수출 대상지역	수출량			점유율			증감률 (2024/2023)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세계	2,91	2,26	2,81	100.0	100.0	100.0	24.4
1	멕시코	46	34	46	15.9	15.2	16.3	33.7
2	베트남	20	17	22	6.8	7.5	7.8	29.4
3	한국	21	20	22	7.2	8.7	7.7	10.4
4	캐나다	14	15	19	4.8	6.6	6.7	26.8
5	미국	23	13	15	8.0	5.8	5.4	15.9

* 자료 : GTA

2024년 중국 알루미늄 판재의 수출량은 46만 톤으로 전년 대비 23.2% 증가

한국은 중국 알루미늄판재의 최대 수출국으로, 2024년 對韓 수출량은 전년 대비 56.6% 증가한 6만 톤 (전체 수출량의 13.1%를 차지)

〈중국 알루미늄 판재(HS 760611) 수출 동향〉 (단위: 만 톤, %)

순위	수출 대상지역	수출량			점유율			증감률 (2024/2023)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세계	51	37	46	100.0	100.0	100.0	23.2
1	한국	9	4	6	18.0	10.4	13.1	56.6
2	아랍에미리트	3	3	3	5.4	7.1	6.5	12.1
3	나이지리아	3	2	3	5.1	6.5	6.4	21.7
4	일본	4	3	3	7.4	8.0	6.3	△1.9
5	인도	3	2	3	5.6	5.0	6.1	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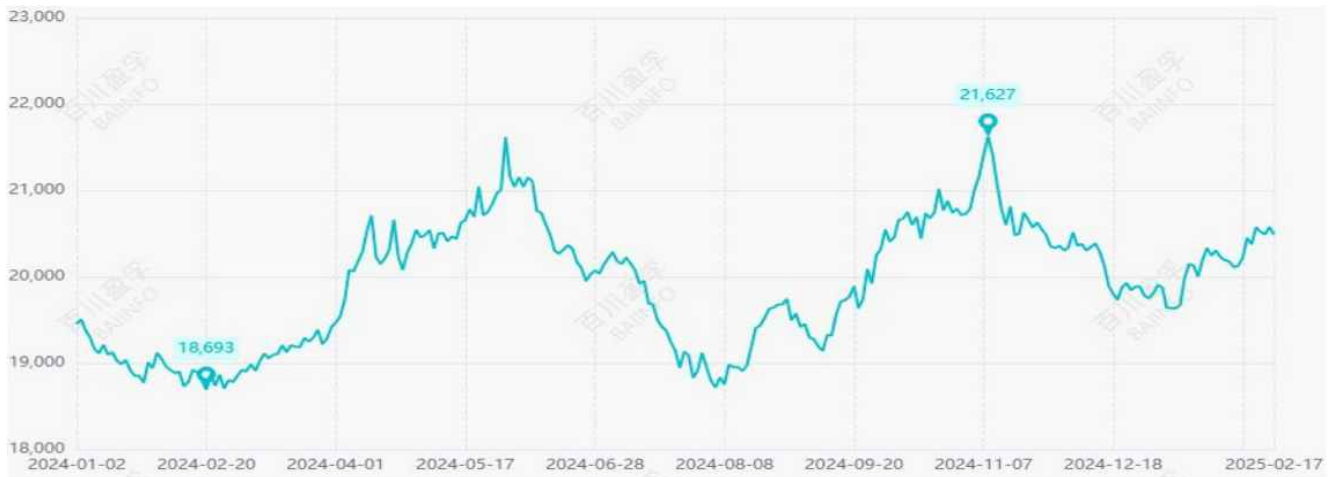
* 자료: GTA

중국 알루미늄 가격동향

- 중국 알루미늄 시장 거래가격은 전 세계 경기 변동 및 중국 국내외 정책적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
- 2024년 중국 전해알루미늄의 톤당 가격은 최저 18,693위안부터 최고 21,627위안까지 등락을 반복했으며, 2025년 2월 17일 기준 중국 전해알루미늄 가격은 톤당 20,487위안
- 최근 미국이 알루미늄 및 그 가공 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올해 초 중국 내 알루미늄 거래가격은 최근 2년 동기 대비 약 10% 내외 상승하였으며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중국 최근 1년 전해알루미늄 가격 동향〉

(단위: 위안/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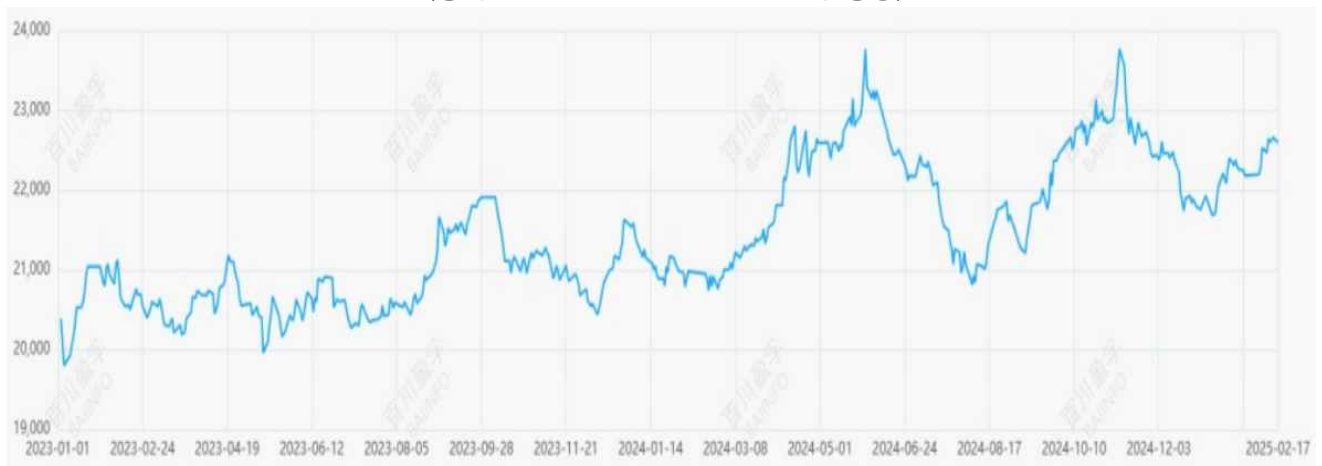


* 자료: BAIINFO

- ▶ 중국 내 알루미늄 판재 시장 거래가격은 원재료인 전해알루미늄의 가격 변화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2023년부터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

〈중국 최근3년 알루미늄판재 가격 동향〉

(단위: 위안/톤)



* 자료: BAIINFO

☞ 전망 및 시사점

- ▶ 중국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따라 알루미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크사이트의 부존량 및 생산량이 부족해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저품위 보크사이트의 종합 이용률 향상, ▲산화알루미늄 제련기술 혁신, ▲폐기 알루미늄 재활용률 제고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알루미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알루미늄 제품 수출 환급세* 폐지 조치는 저가 제품의 밀어내기 수출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산업을 전환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함. 이는 향후 중국 정부가 알루미늄 산업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고도화를 추구할 것임을 시사

* 수출 환급세 : 국가가 지정한 수출제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수출지원 제도

🔥 중국은 12.1일부 ①알루미늄·구리·화학적 변화를 거친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오일 및 지방 등 HS Code 8단위 기준 59개 품목에 대한 수출세 환급 폐지, ②정제유, 태양광, 배터리, 구형흑연을 포함한 일부 비금속광물 등 HS Code 8단위 기준 209개 품목에 대한 수출세 환급률을 기존 13%에서 9%로 하향 조정하기로 함

- 🔍 중국 내부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상 이슈도 알루미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부과 조치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완제품 및 부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해당 조치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알루미늄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 중국의 대미 알루미늄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량의 약 5%로 낮아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글로벌시장 전반에는 상당한 파급 효과가 불가피함. 특히 미국 내 알루미늄 최종 거래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늄 가격 인상이 초래될 것으로 보임. 이는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에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무역 흐름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음
- 🔍 귀신증권의 수석 애널리스트 구평다(顾冯达)는 “미국의 전면적인 관세부과로 인해 글로벌 알루미늄 무역 흐름과 산업체인 상·하류의 자원 배분에 변화가 생길 것이며, 이로 인해 수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함. 또한 “미국의 조치는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을 악화시켜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임
-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시장 가격 변동성에 대비해 원자재 조달 전략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요 교역국들의 관세 정책과 비관세 장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체 시장 발굴 및 리스크 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함

공급망 소식통

◆ 2025년 대한민국 소비자·서비스 수출대전(~3.21.)

작성 KOTRA 서비스ICT실

참가신청 QR



2025 대한민국 소비자·서비스 수출대전

K-LIFESTYLE SHOWCASE 2025

4. 15.(화) - 4. 16.(수)
COEX 3층 C Hall

서비스 기업 모집 기간 연장(~3.21)
분야 : F&B 프랜차이즈, 에듀테크, 콘텐츠(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등)
* 소비자는 기업 모집 마감

kotra

글로벌 경제지표 ['25.3.4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12말	2/27	2/28	3/4	전일비	전년말비
₩/U\$	1,264.50	1,288.00	1,472.50	1,443.00	1,463.40	1,461.80	△0.11	△0.73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473.80	1,440.60	1,461.00	1,459.40	△0.11	△0.98
₩/CNY	181.44	181.37	202.38	198.60	197.58	199.72	1.08	△1.31
₩/¥100	945.56	912.25	932.67	965.86	975.86	978.38	0.26	4.90
¥/U\$	133.73	141.19	157.88	149.40	149.96	149.41	△0.37	△5.36
U\$/EUR€	1.0617	1.1105	1.0429	1.0467	1.0383	1.0488	1.01	0.57
CNY/U\$	6.9630	7.1092	7.2992	7.2695	7.2869	7.2846	△0.03	△0.20

* '24년 평균 환율: (₩/U\$) 1364.8원, (₩/¥100) 900.8원 / '25년 평균 환율('25.1.1일~현재): (₩/U\$) 1450.6원, (₩/¥100) 942.0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4년 최저(해당일)	12/31('24년)	3/3	3/4	전일비	'24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53(11.18일)	75.94	73.23	70.44	△2.8	0.1	△5.5
						△3.8%	0.2%	△7.2%
철광석		89.35(9.23일)	100.00	101.05	101.95	0.9	12.6	2.0
						0.9%	14.1%	2.0%
비철 금속	구리	8,085.50(2.12일)	8,706.00	9,360.50	9,395.00	34.5	1309.5	689.0
						0.4%	16.2%	7.9%
	알루미늄	2,110.00(1.22일)	2,516.50	2,624.00	2,634.00	10.0	524.0	117.5
						0.4%	24.8%	4.7%
	니켈	14,965.00(12.19일)	15,100.00	15,600.00	15,760.00	160.0	795.0	660.0
						1.0%	5.3%	4.4%

반도체

구 분	'22년말	'23년말	'24.11말	'24.12말	'25.1말	2/27	2/28	3/3	3월(~3)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1.74	1.84	1.75	1.74	1.72	1.72	1.72	1.72
(%, YoY)	△23.0%	△14.8%	10.8	0.5	△6.3	△11.9	△11.6	△11.7	△11.0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7.25	6.38	6.68	6.63	6.63	6.62	6.63	6.65	6.65
(%, YoY)	10.7	△2.3	4.0	3.9	3.8	3.1	3.2	3.6	3.8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29('23년)	12/27('24년)	2/14	2/21	2/28	전주비(2/21)	전년말비
SCFI	1759.57	2460.34	1758.82	1595.08	1515.29	△5.0%	△38.4%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2('23년)	12/24('24년)	1/2	2/26	2/27	2/28	3/3	전주비(2/28)	전년말비
BDI	2094	997	1029	1112	1159	1229	1276	3.7%	4.2%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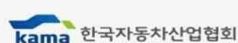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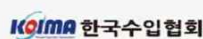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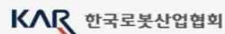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